

남자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성추행 시달려



멕시코에서 여성이 2개월 동안 남자교도소에 수감돼 성추행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건은 2018년 8~9월 멕시코 사카테카스주 칼데라에 있는 교도소에서 벌어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선고받은 여성 브렌다는 남자교도소에 수감됐다. 남자교도소에 여자가 들어오면 바로 경위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냥 입소시켰다. 사법부가 수감을 명령하면서 문서에 칼데라에 있는 남자교도소를 수감시설로 지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남자교도소에 들어간 브렌다는 곧바로 가족을 통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가 녹장을 부리면서 이 감에는 꼬박 2개월이 걸렸다.

브렌다는 남자들의 성노리갯감이 됐다. 교도관까지 가세한 성폭행도 있었다. 성폭행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교도관은 현재 도주한 상태이다.

사건은 인권위원회가 뒤늦게 지난해 12월 “여자를 남자교도소에 수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브렌다를 성추행한 남자재소자와 교도관을 모두 밝혀냈으며 빠른 시일 내 수사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호흡으로 도마뱀 살려낸 남성

호주의 한 남성이 맥주잔에 빠진 도마뱀을 인공호흡으로 살려냈다.



도마뱀은 감사라도 전하는 듯 남성이 술집을 떠날 때까지 이 남성의 몸을 기어 다녔다고 한다.

1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코린디 해변의 한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이 남성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맥주잔 속에는 작은 도마뱀 한 마리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남성은 죽기 직전의 도마뱀을 잔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손가락만 한 작은 도마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압박하기도 하고 도마뱀의 입에 자신의 입을 대고 인공호흡도 실시했다.

얼마 후, 정신을 잃었던 도마뱀이 꿈틀거렸다. 상황을 지켜보던 구급꾼들은 살아난 도마뱀을 보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도마뱀을 살려낸 남성도 “내가 도마뱀의 목숨을 구했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기사회생한

호주에서는 지난 5일에도 물에 빠진 도마뱀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구급대원이 화제에 오른 바 있다. 당시 뉴사우스웨일스주 핼블 고든소방서의 한 구급대원은 수영장에 빠진 도마뱀이 죽은 것 같다는 이웃집의 연락을 받았다. 이미 도마뱀의 호흡은 멈춘 상태였지만 그대로 돌아설 수 없었던 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도마뱀은 10분이 지난 뒤의 식을 회복했다.

반려동물이 의식을 잃었거나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할 때는 1초당 2회씩 심장 압박을 하고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 만약 맥박은 있지만 호흡은 없는 경우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다만 몸집이 작은 동물의 입에 너무 세게 바람을 불어넣으면 폐포가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여교사-남학생 커플사진에 담긴 사연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열린 커플사진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남학생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멕시코 오브레곤에 있는 5번 중학교 학생회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온라인 커플사진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커플사진을 찍어 학생회가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지만 하면 됐다. 학생회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른 사진 중 네티즌 반응이 가장 뜨거운 사진을 최고작으로 선정해 그 주인공에게 영화관람권을 주기로 했다.

이 학교에 다니는 루이스 리카르도도 커플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싶어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평소 말이 어눌했던 리카르도에게 관심을 보인 여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리카르도가 좌절하고 있을 때 이 학교의 여교사 미셸이 그를 찾아왔다.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리카르도의 사정을 알게 된 미셸은 리카르도에게 “아직 커플사진 찍지 않았지? 나랑 찍을까?”라며 손을 내밀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교사 덕분에 소원했던 커플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지만 리카르도는 웬지 수줍었던 것 같다. 사진 속 미셸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리카르도는 약간 겸연쩍어 하는 얼굴이다. 그럼에도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저마다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면서 압도적 최고작으로 선정됐다.

1등으로 선정되면서 영화관람권 2장을 받은 리카르도는 엄마와 영화관데이트를 할 생각이다. 리카르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평소 극장에 가질 못했다.”면서 “엄마와 함께 영화를 보면서 발렌타인데이 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